

‘기록’의 삼성



지난 1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넥센 히어로즈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삼성 선수들이 삼폐인을 뿌리며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4연속 정규시즌 1위 기록... 8번째 프로야구 우승팀
4연속 한국시리즈 제패, 해태(KIA 전신) 기록과 타이

‘전통의 명가’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야구사를 새로 썼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벌어진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선발 윤성환의 호투 속에 야마이코 나바로는 3점 홈런을 터뜨리는 등 장타 11안타와 사사구 8개를 묶어 11-1로 넥센 히어로즈를 대파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2패를 기록한 삼성은 류중일 감독이 부임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했다.

한국시리즈 4년 연속 우승은 해태(KIA의 전신) 타이거즈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수립한 최다 연속 우승 기록과 타이이다. 1982년 프로야구 원년 멤버인 삼성은 팀 통산 7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획득해 역대 최다 우승팀인 KIA(전신 해태 포함)의 10회 우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한국시리즈 없이 전후기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1985년을 포함해 통산 8번째 프로야구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삼성은 4년 연속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에서 통합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팀이 됐다.

해태는 한국시리즈 4연패 당시 1988년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을 뿐 나머지는 세번은 승

률 2위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6차전에서 3점 홈런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5타점의 맹타를 휘둘른 야마이코 나바로는 한국시리즈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됐다.

나바로는 이번 시리즈에서 24타수 8안타로 타율 0.333, 4홈런, 10타점을 기록하며 삼성 공격을 주도했다.

4홈런은 2001년 한국시리즈에서 타이론 우즈(두산)가 수립한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이다.

나바로는 기자단 투표에서 총 73표 중 32표를 획득, 팀 동료인 최형우(25표)와 윤성환(16표)을 따돌렸다.

외국인 선수가 한국시리즈 MVP로 선정된 것은 2000년 탭 쿨란(현대), 2001년 우즈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삼성의 최고참 포수 진갑용은 개인 통산 한국시리즈 59경기에 출전해 최다 출장 신기록을 세웠다. 박한이는 포스트시즌 최다 사구(52개) 신기록을 세웠고, 최형우는 포스트시즌 통산 최다 2루타(15개)를 기록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삼성이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시리즈는 2002년부터 13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KIA ‘용병 딜레마’

필, 시즌 타율 0.309... 성적·인성 합격점 불구 포지션 활용도 떨어져
안치홍·김선빈 대체 자원 부족... 공·수·주 고려 제2의 나바로 찾아

나바로 활약에 삼성은 웃었고 KIA는 고민에 빠졌다.

프로야구 2014시즌이 지난 11일 삼성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삼성은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11-1로 넥센을 제압하며 사상 첫 통합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 중심에는 나바로가 있었다. 삼성의 2루를 책임지며 홈런 치는 1번타자로 활약한 나바로는 한국시리즈 6경기에서 0.333의 타율로 4홈런 10타점 1도루를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MVP에 등극했다. 외국인 선수로는 2000년 톱 쿨란(현대), 2001년 타이론 우즈(두산)에 이어 역대 세 번째 MVP다.

화려하지 않은 이력 탓에 영입 당시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나바로지만 정규시즌은 물론 ‘가을잔치’에서까지 활약을 이어가며 삼성을 웃게 했다.

나바로 활약을 지켜본 KIA는 고민이 깊어졌다. 외국인 타자를 놓고 복잡한 계산이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올 시즌 KIA는 브렛 필과 인연을 맺었다. 주로 1루수로 출장했던 필은 올 시즌 92경기에 나와 0.309의 타율로 19홈런 66타점을 기록했다. 6월 초반 삼성 배영수의 공에 손등 골절상을 당하면서 100%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괜찮은 성적표를 제출했다.

필은 성적 외적인 요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성실함은 기본에 인성까지 갖춘 선수로 최고점을 받았다.

올 시즌에 보여준 성적과 성격만으로는 재계약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여기에 필은 원소속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이적료까지 주며 공을 들여 영입했던 선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년 시즌 팀의 전력을 놓고 보면 KIA의 선택이 쉽지 않다. 야수진 구성에서 빨간불이 켜진 포지션은 2루다. 안치홍이 2009년 입단 이후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왔지만 내년 시즌 경찰청 2루수가 된다.

마땅한 대체 자원을 준비해놓지 못한 탓에 내년 전력 구성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자리가 됐다. 두베테랑 김민우·박기남과 신인 강현을·박찬호가 2루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주전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 공격에서의 힘도 다를 수밖에 없다. 주전 유격수 김선빈까지 상무 복무를 시작하면서 내야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KIA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포지션 활용도를 생각하면 필은 차선책이다. 공·수·주를 고려한다면 KIA는 제 2의 나바로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검증된 필과 달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있다. 여기에 1루도 안정된 포지션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최희섭이 복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예측불허의 전력이고, 백업요원 김주영은 발목 수술로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1루와 2루의 복잡한 계산. KIA는 고민의 스토브리그를 보내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시리즈 MVP 삼성 나바로



양현종

포스팅 신청 앞두고 3~4개 구단서 관심

미국 프로야구 진출을 노리는 KIA 타이거즈 원손 에이스 양현종(26)이 차분하게 포스팅을 준비 중이다.

다소 늦게 해외진출을 결심했지만 에이전시를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에 자신을 홍보했고, 포스팅 신청을 앞두고 있다.

양현종의 에이전트는 12일 “그동안 메이저리그 구단에 양현종을 알리고자 노력했고, 성과가 있었다”며 “3~4개 구단에서 양현종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지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에이전트는 “메이저리그 구단이 양현종의 부상 위험이 낮은 깔끔한 투구 동작과 안정된 구위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며 “구단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 현지 에이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양현종이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를 구사하는 ‘포-피치 투수’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양현종은 엘버트 푸홀스·브라이언 윌슨(이상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조이 보토(신시내티 레즈) 등을 보유한 MVP 베이스볼 에이전시(MVP 스포츠그룹)와 계약했다. 이 에이전시는 자료를 만들어 메이저리그 구단에 양현종에 대해 알렸다.

흥미를 보인 구단 중 대부분이 2011년과 2012년의 부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양현종은 2011년 7승 9패 평균자책점 6.18로 고전했고, 2012년에는 41이닝만 소화하며 1승 2패 2홀드 평균자책점 5.05로 더 내려앉았다.

양현종의 에이전트는 “양현종이 2010년 시즌 종료 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치렀고 다음 시즌 준비에 애를 먹었다. 결국 2011년 성적이 좋지 않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몸을 만들고 스프링캠프에서 지나치게 투구 수를 늘리다 2012년까지도 고전했다”고 설명했다.

양현종은 이르면 17일 포스팅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호감 상승

ML 진출

도전 계속

응찰액 200만달러(22억원)...SK, 받아들이기로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원손 에이스 김광현(26)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에도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계속한다.

SK는 12일 메이저리그 구단이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김광현을 영입하겠다고 적어낸 최고 응찰액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광현의 영입 의사를 밝힌 구단이 제시한 최고 응찰액은 200만 달러(약 21억 9000만원)다. 미국 현지의 보도에 의하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이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에 전달된 금액은 포스팅시스템에 응한 역대 한국 선수가 받아온 응찰액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액수지만, SK와 김광현 측에서 기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류현진이 2012년 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로부터 받은 2573만737달러33센트의 역대 최고액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500만 달러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양측은 기대했다. 이 때문에 SK와 김광현은 하루를 넘겨 의견을 주고받으며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큰 도전에 나서고 싶다는 선수의 뜻을 존중한 SK가 포스팅 결과를 수용하면서 김광현의 메이

저리그 도전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SK는 “내부 회의와 선수와의 면담을 통해 김광현의 오랜 꿈을 후원해주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포스팅 결과 수용을 결정했다”며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가 포스팅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김광현은 최고액을 써낸 구단과 1개월간 입단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포스팅시스템은 한국 선수 영입을 희망하는 MLB 구단이 비공개 입찰을 통해 교섭권을 획득하는 제도다.

김광현은 SK 구단의 허락을 받아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선언했고, SK는 이날 1일 KBO에 포스팅을 요청했다.

김광현은 구단을 통해 “포스팅 결과를 수용해 준 구단과 김 감독님을 비롯한 SK선수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어렸을 때 꿈꾸던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기회를 잘 살려 실력으로 검증받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 신인 같은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광현

